

전남 솔라시도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4400만평 RE100 데이터센터 조성 등 호평 AI슈퍼클러스터 허브 산단 탄력 신개념 AI 에너지 신도시 건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와 그 일원 약 4400만 평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산업부는

해남 일대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인근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RE100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전력 계통 안정화와 더불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솔라시도 분산특구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 등을 유치하는 수요유치형 특구로 인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최적으로 조합해 지역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분산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솔라시도 해남 구성지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특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재생에너지-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도시 모델인 AI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솔라시도 영암 삼호삼포지구에는

인근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해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간 협력 방안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구상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20년간 투자해왔지만, 지역적 한계로 투자 유치가 미흡했다”며 “분산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이 국가균

형발전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솔라시도 분산특구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기존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아 에너지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시키는 동시에 분산 편익을 반영한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되는데다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 지역 발전사업자의 전력 시장 진입과 판매 경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옥외광고 정비 정부평가 우수사례 선정

‘불법 현수막 제로’ 정비 호평 간판 개선·전자게시대 설치도

광주광역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목표로 정비체계를 한층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등 시간대별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특히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

에만 게시하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2023년 총 83만6182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던 것을 2024년에는 15만635건으로 82%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광주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매체와 신문,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에 간판 개선 사업이 선정돼 총장로 일원 건물 50동, 업소 122개 대상으로 간판 268개를 개선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26일 황룡강서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장록국가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광주광역시시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맞아 오는 26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생활환경회의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2년 유엔(UN)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5월22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기념일로,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행사는 △식전공연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2024년 실천결의 경과보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퍼포먼스 △교란식물 퇴치활동 및 정화활동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광주 생물다양성 행사’를 처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록국가습지를 비롯해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생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도내 기업… 내달 1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디자인,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식품, 공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0일부터 3주간 참여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기업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발표 등을 거쳐 신규 개발 8개소, 리뉴얼 개발 10개소, 총 18개소

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대상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재)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장인정신과 자부심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의 정성과 제품, 지역의 이야기가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고흥 포두면에서 열린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에서 문금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등과 테이프 커팅을

전남도 제공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광주 거주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 개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25일 광주대 네팔 등 8개팀·150여명 근로자 참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5 광주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광주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축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8개팀 15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참가하며,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행사 당일에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대 한국어학과, 광주은행 외국인 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상담 부스와 먹거리 부스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패어플레이상을 수상한 팀에게도 별

도의 시상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4월 광산구에 흑석동에 개소했다. 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상담, 한국어 교육, 법률·노무 상담, 금융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 속도

산업부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선정 지역8개 대학·2개 기관에 180억 투입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공모에 선정돼 해상풍력 등 수요에 선제 대응할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목포대, 순천대, 한국에너지공과대, 동신대, 전북대, 전주대, 전남대, 조선대 등 8개 대학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북TP 등 2개 지역 혁신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6년간

국비 145억, 지방비 34억8000만 원 등 약 18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사업은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에너지 등 3대 분야로 구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운용과 관련 기술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지역 인재 감소와 전문 인력 양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혁신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이 호남권에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공유 △지역 에너지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 프로젝트 등이다.

이들은 참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과 특화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핵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호남권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해상풍력 등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